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2023 Vol.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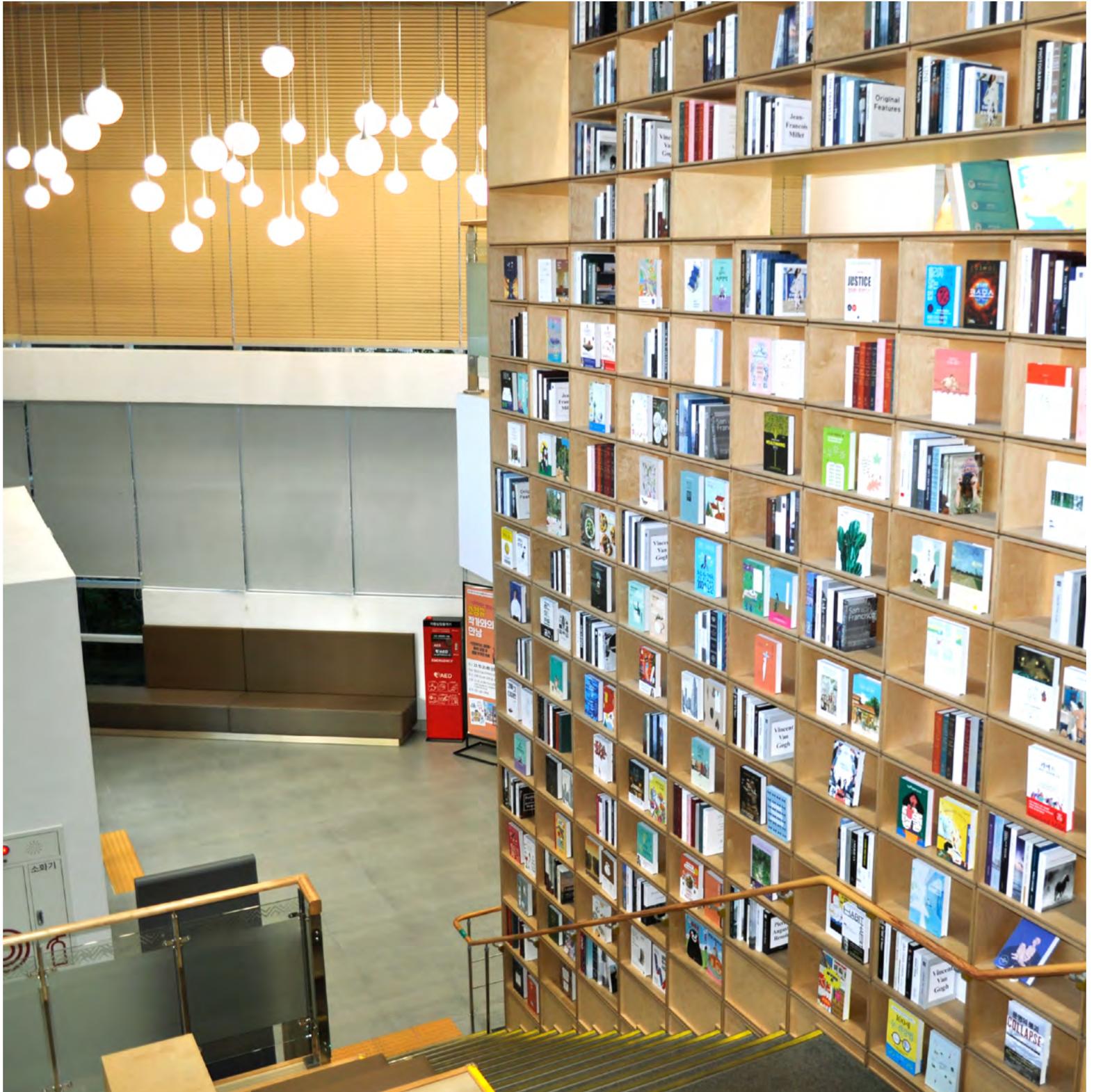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 공공건축,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다

경사지형과 옹벽이라는 단점을  
삼각형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오픈된 공간과 자유로운 내부 수직 동선으로  
경계 없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표지이야기 수영구도서관  
(2022 부산다운 건축상 은상 수상작)

##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LETTER Vol.38

- |        |                      |
|--------|----------------------|
| 발행인    | 회장 김세원               |
| 기고/투고  | kosca21@kosca.or.kr  |
| 편집/발행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 디자인/제작 | CCA (051. 647. 5991) |
| 사진제공   | CCA, 김정구청            |



수영구도서관  
(2022 부산다운 건축상 은상 수상작)



2023 Vol.38

# Contents

## KOSCA MESSAGE

- 04 권두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상윤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 KOSCA NEWS

- 06 협회 소식
- 12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KOSCA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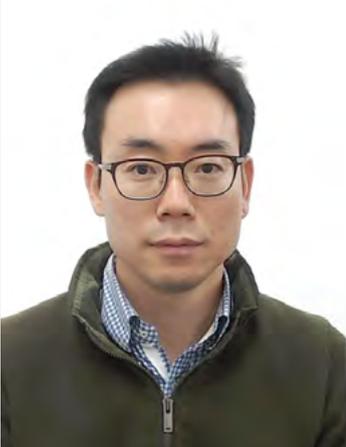
- 16 전문건설인의 삶 건삶인 제73호 - (주)호승윈스피아 대표이사 김찬복  
건삶인 제74호 - (주)이레패널 대표이사 김진태
- 20 건설산업정보 Part 01 - 법령개정  
Part 02 - 회원사안내
- 30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32 특별기고 세무칼럼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 34 특허 및 신기술 소개 2023년 3/4분기 신기술 현황
- 35 그것이 알고 싶다 하도급 분쟁 해법

## KOSCA TODAY

- 36 회원사 현황
- 39 협회·조합 소식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2023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 40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한 눈에 보는 산업현장 필수 안전(밀폐 공간/이동식 비계)
- 42 2023년 건설업 교육

## KOSCA TOGETHER

- 43 오늘의 트렌드 MZ세대 넘어 잘파세대가 온다
- 44 부산의 명소 금정구 회동호
- 45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성 바실 대성당
- 46 소통하는 문화공간 힐링 무비, 힐링 북
- 48 글로벌 이슈 본격적 2차전지의 시대
- 49 슬기로운 생활 꿀팁 공공개방자원 플랫폼 '공유누리'
- 50 하루 5분 건강습관, 건강음식
- 52 독자와 함께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사의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 상 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지난 7월 약 30년 만에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보니, 해운대와 기장 등 곳곳이 상전벽해라는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및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발전에 헌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의 건설업계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였으나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기 어렵고, 급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설경기가 되살아 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대 기업 간 경쟁보다는 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생태계 간 경쟁입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중소기업부와 함께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의 요건 및 산식, 연동절차,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경기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등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의 전문건설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하여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도약하기를 고대합니다.

**조 유 장**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1985년 10월 15일 설립된 이래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정세는 여전히 암담합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2023년부터는 좀 더 안정적인 회복과 성장세가 기대되었으나,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물가 상승에 따른 미국 발 금리 급등, 산유국 사우디의 원유생산 감산 및 친중노선 행보,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지속 등 냉랭한 글로벌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이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전지구적 어려움을 전세계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어젠다를 주도하고 각 국가와 다양한 경제·외교적 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에는 수도권 일극주의로 고사 위기에 처한 동남권·남부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인프라를 정비·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놓고 수도권과 함께 양극체제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 바퀴가 아닌 두 바퀴로 힘차게 돌아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총 3,480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입니다. 또한, 부지조성 및 건축단계, 행사운영단계에서 4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0만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람회 준비과정에서 전시관, 주변도로, 부대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시장은 호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국내외 소비 지출로 인해 경제는 활력을 얻게 되며, 간접효과로 지역 및 지역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으로 관광산업이나 전시산업에 수익증대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세계박람회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일본은 세계박람회를 가장 잘 활용한 국가로, 적절한 시기에 엑스포를 국가 운영전략의 자양분으로 활용하여 2005아이치엑스포를 통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린 장기 침체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2020두바이엑스포를 통해 두바이를 중동의 허브에서 첨단 글로벌 허브로 탈바꿈시켰으며, 팬데믹 상황임에도 2021년 엑스포 개최로 건설,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등 경제 붐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변화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을 알리고 역량을 신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국 지선사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평가'에서 부산을 서울보다 앞서 세계 19위, 아시아 3위로 평가하였고, 세계적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3년 세계 살기 좋은 도시'에 부산을 아시아 6위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등 대규모 현안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부산에 대한 기업 투자도 3년 전보다 16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부산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말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도약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회의 및 행사

### 01 2022년도 실적 우수회원 대표자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7월 5일(12:00 / 해운대 몽일식 2층) 회장단과 2022년도 실적우수 회원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실적 우수 회원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협회와 부산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에 감사’하며,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계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02 2023회계연도 제1차 임원연석회의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7월 13일(11:30 / 월강초밥 4층 회의실)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제1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대표이사”와, “홍산건설(주) 신상기 대표이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이 수여 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생산체계 개편 진행상황 등 부산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다.



### 03 2023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회의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8월 3일(11:30 / 서면 급행장 차이나 2층 회의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업종별 등록현황과 중앙회 생산체계 정상화 입법추진 TF 구성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운영위원 및 감사 합동 연수회 개최(안)」 및 「부산전문건설인 제3회 쌓아올림 콘서트 개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04 2023회계연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분과회의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8월 9일(11:00 / 범천동 소재 포항회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회원사 대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전문·종합의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생산체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구조물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분과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로 부터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영구용역」을 수행중인 경상대학교 김창학 교수와의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어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기준 완화, 해체계획서 작성 문제점, 해체공사 심의절차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05 2023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8월 29일(12:30 / 총복 보은 대성식당 회의실) 운영위원 및 감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도 대표회원 연수회」 및 「부산전문건설인 제3회 쌓아올림 콘서트 개최」에 대한 보고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어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기준 완화, 해체계획서 작성 문제점, 해체공사 심의절차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06 2023년도 운영위원 및 감사 합동 연수회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8월 29일 ~ 30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사회 운영위원 및 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일원(속리산 및 보은 혁신도시 등)에서 「2023년도 운영위원 및 감사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합동 연수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함께, “전문·종합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일감부족 등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 중앙회에서 구성된 「생산체계 정상화 입법추진 TF」의 위원장으로서 순공사비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업종 등록사업자 시공을 원칙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입법 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합동연수회 참석자들은 속리산 일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과 함께 협회 발전과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07 2023회계연도 대표회원 연수회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9월 15일 협회발전과 대표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대표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대표회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 참석자들은 지난 40년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서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기동헬기, 송골매 무인기 개발 등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항공전력을 책임져온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국내 항공우주과학에 관한 자료를 보존·전시하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을 둘러보며, 대표회원간 친목도모와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종합간 상호건설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의 일방적인 전문공사 진출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일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0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24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칸막이가 사라짐에 따라 극심한 수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문건설업계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올 하반기 들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과 시급한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세원 회장은 “2021년부터 전문·종합간 상호건설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의 일방적인 전문공사 진출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일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불공정한 전문 - 종합 상호 건설시장 개방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순공사비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업 참여 제한과 전문·종합간 시공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해당 업종 등록사업자 시공을 원칙으로 발주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전문-종합 상호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인 우리사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시급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전문건설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 간담회 개최 현황 ]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이헌승 국회의원 간담회	2023.07.19(수), 12:00	부산진구 소재 한식당	
정동만 국회의원 간담회	2023.07.22(토), 14:00	정동만 국회의원 부산사무실 (기장군 소재)	
서병수 국회의원 간담회	2023.08.03(목), 12:00	급행장 차이나 (부산진구 소재)	
최인호 국회의원 간담회	2023.08.19(토), 11:00	최인호 국회의원 부산사무실 (사하구 소재)	



이헌승 국회의원 간담회



정동만 국회의원 간담회



서병수 국회의원 간담회



최인호 국회의원 간담회

## 02 전문건설 말살 제도 방지 국토부 규탄대회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전문건설업계는 9월 12일 세종시 정부 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해(22년)에도 단체행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만 믿고 기다리다간 더 이상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지킬 수가 없어 전국의 모든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을 대표해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에 참석한 3,000여명의 전문건설인들은 정부를 향해 전문건설업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전문업종이 대업종화 되면서 변화가 있다' '전문업종간 공동도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등등을 핑계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김세원 부산시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생산체계 태스크포스(TF)는 이번 대규모 집회에서 현재 전문은 입찰경쟁력이 없어 시공능력을 갖추고도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고, 직접시공을 하지않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무분별하게 수주해 불법하도급만 양산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전문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점을 호소하며, 국토부장관 및 정책당국에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전문건설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그 외의 제도들은 추후 협의해 진행해야 함을 밝히고, 나아가 상호시장 개방 제도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폐지해 기존의 전문과 종합의 업역 체계로 복원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국토부에 강력히 전달하였다. 아울러 전문업계는 결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03 추석 명절대비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한 현장방문**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부산시 하도급 관리팀과 합동으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 내 대형건설현장 6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사회는 지역업체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및 실패를 점검함과 동시에 각 현장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공종별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했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04 부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청 - 협회-시공사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7월 20일(16:00 / 사하구청 중회의실) 이갑준 사하구청장, 8월 24일(11:00 / 북구청 소회의실) 오태원 북구청장과 관내 건설대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갖고, 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실시공을 전담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부산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구청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하며, “우리사회도 회원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의식 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갑준 사하구청장 및 오태원 북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구청-협회-건설대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하는 만큼, 참석한 건설대기업 관계자에게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을 당부”하였다.



사하구 - 협회 - 시공사 3자간 업무협약(MOU)



북구 - 협회 - 시공사 3자간 업무협약(MOU)

**수주지원**

**01 2023년도 추경예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2023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 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의 횡포는 건설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부실공사 예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및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종합공사를 공사금액 관계없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토록 확대·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적용이 힘들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2022년도 부산지역에서 53건의 건설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었으며, 적정공사비 확보와 다단계 하도급 방지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7월 24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등 부산 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02 2023년도 하반기(추경예산)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7월 24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수집한 「2023년도 하반기(추경예산) 공공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2023년도 하반기(추경예산) 공공공사 발주계획 ]**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고
1	부산광역시	34 건	118,125	
2	강 서 구 청	104 건	36,446	
3	금 정 구 청	39 건	22,526	
4	남 구 청	33 건	19,129	
5	동 구 청	36 건	22,768	
6	동 래 구 청	46 건	36,035	
7	부산진구청	38 건	26,589	
8	북 구 청	31 건	38,644	
9	사 상 구 청	46 건	29,686	
10	사 하 구 청	70 건	28,897	
11	서 구 청	35 건	19,957	
12	수 영 구 청	26 건	11,935	
13	연 제 구 청	18 건	6,029	
14	영 도 구 청	27 건	17,395	
15	중 구 청	13 건	8,103	
16	해운대구청	28 건	16,031	
계		<b>624 건</b>	<b>458,295</b>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추경예산에 따른 3.5억 미만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제한 발주 협조

## 전문·종합간 수주 불균형을 넘어 건설공사 목적물 품질 향상까지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시행('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 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 보다 현저히 적어 형평성 논란이 줄곧 발생하고 있다.

상호시장 개방과 직접시공의 취지 아래 시행된 업역개편은 종합건설사업자에게는 입찰참여의 한없는 자유를 주었으나, 전문건설사업자에게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서 허울에 지나지 않는 기회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제한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을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325호, '22. 6.10)하였다.

당초 영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4년까지 2억원 미만의 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7월 25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8월 3일에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수주불균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전문업계의 현실을 전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정취지를 반드시 감안하여 3.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들 위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하여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3.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도 전문분야의 시공경험·실력이 요구되는 공사, 종합업종이 시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공사, 또는 연단간가 공사와 같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공사 등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 사유를 적고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여 발주가 가능한 점을 안내하였다.

전문건설업종과 종합건설업종간 입찰참여 불균형 해소와 건설공사 목적물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과 전문업계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 04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2029년 완공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함에 따라 건설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에서 벌어지는 공사인만큼 지역 건설업계에 대규모 수주 기회를 제공해 침체된 지역 경기의 회복도 기대된다. 하지만, 공항 건설 컨소시엄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아, 벌써부터 서울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민간건축 경기의 침체와 공공공사(SOC사업 등)의 발주물량 감소로 2,300여 부산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난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2년도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중 2조원 이상을 타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아감으로써 부산시민의 자금과 부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공적 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부산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산에서 시행되는 7조원에 육박하는 가덕도신공항 대규모 건설공사에 2,300여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많은 하도급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부산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은 부산 경제활성화와 동시에 건설불황을 이겨낼 기회를 꿈꾸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는 지역장비 임대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부산 건설근로자 고용창출에도 직접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9월 8일 부산광역시 공항기획과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도개선

### 01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7월 25일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개선을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에 ‘데크설치공사’ 추가

- 데크설치공사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주력:조경시설물)에서 시공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데크설치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무내용 중 건설공사 예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종합건설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 02 **공제조합 공제·보증제도 개선사항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8월 2일 공제조합 공제·보증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기간만료 보증의 자동소멸기간 축소 또는 절차 간소화

- 자동소멸기간이 현재 6개월에 달해 보증 한도 부분에서 불편함 초래  
⇒ 2~3개월 정도로 기간 축소
- 이행완료확인서 제출로 소멸 가능하나 원도급사의 직인 지연 문제가 잦음  
⇒ 기성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멸진행 가능토록 개선

#### ■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개선

- 선급금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이 공동관리 통장으로 공동관리되고 있어 선급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급금 금액이 많을수록 공동관리 비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건설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치명적  
⇒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원 부담 완화

#### ■ 보증서 발급시 이중 납부 문제 개선

- 보증서(입찰, 계약 등) 발급 후 변경사항이나 기재 오류 발생 시

보증서를 다시 끊어야 하나, 당일 발급 건임에도 수수료가 재발생  
⇒ 이중 납부 문제 개선

- 자동소멸기간이 현재 6개월에 달해 보증 한도 부분에서 불편함 초래  
⇒ 2~3개월 정도로 기간 축소
- 이행완료확인서 제출로 소멸 가능하나 원도급사의 직인 지연 문제가 잦음  
⇒ 기성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멸진행 가능토록 개선

### 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8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하수급인 불법하도급 적법성 확인의무 신설 반대

- 건설현장의 원·하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법하도급에 대해 상호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하수급인 입장에서 정보입수를 위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자칫 범법자로 까지 전락될 우려가 있음.

####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 확대 반대

- 공공공사 참여 제한 대상이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에게까지 확대된다면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가 지금보다 음성적으로 만연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

#### ■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 발생 후 5명 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신설 반대

-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처벌 일색의 안전관련법이 구성되어 있으며, 잇따른 처벌조항 신설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추가 반대

- 하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급인으로 부터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등록말소 후 5년간 건설업 등록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임.

0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8월 18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품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수정안 제22조제3항)
  -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는 단품 계약금액이 인상될 경우 해당 계약금액이 조정됨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동일 내용을 임의 적용토록 법이 규정되어 있기에 단품 계약금액 인상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명시하고자 함.
- 물가변동 조정기한 연장 단서조항 개선(수정안 제22조제7항)
  - 현재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도급인의 입장이 우선 반영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8월 28일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조항 신설 개정(안) 전면 반대
  - 건설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심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는 것은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건설사들에게 큰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건설업체에 준법감시인을 둘 실효성 부족  
준법감시인이 본인을 지정한 해당 건설업체의 위법 사항의 점검과 제재를 실제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도급 단계 하위에 위치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 상위 주체의 영향력이 만연한 건설업계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0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9월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적용 4년 유예
  -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시킬 기한이 촉박하며,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문제 등의 어려움이 크기에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현장에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 (주) 호승원스피아 대표이사 김 찬 복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극기치원 (克己致遠-나를 이겨야 멀리 갈 수 있다)’은 ‘힘든 순간을 기필코 이겨 내고야 마는’ 건삶인의 치열한 정신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부산 기장군 정관에 있는 (주)호승원스피아 사무실. 참 소박하다. 접객용 소파를 딱딱한 의자 몇 개를 놔둔 탁자가 대신한다. 냉장고를 갖춘 주방을 겸비한 실용적인 공간이다. 선한 표정의 김찬복(61) 대표가 손수 원두를 갈고 커피를 끓여내 대접한다.

김 대표의 고향은 전북 장수. 덕유산 해발 오백 고지의 험준한 오지에서 천수답 농사를 지었다. 1남5녀 집안의 귀한 외동아들이었지만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터라 모진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다.

“농고를 나와 낙농업을 하려고 했지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고 부산 외갓집으로 왔죠. 아는 사람도 없는 타향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닥치는 대로 현장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창 경제개발에 매진하던 때여서 공고와 상고가 인기였단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었고, 선택한게 창호기술이었다.

1980년대 후반 한 창호 업체에 입사한 그는 열정을 불태우며 일을 배워나갔다. 관리업무를 맡은 그는 수십여 곳에 이르는 현장을 두루 섭렵해나갔다. 1인 다역을 눈코 뜰 새 없이 해나가야 했다. 더구나 야간 대학(건축과)까지 다녀야 했으니 그 주경야독의 어려움을 어찌 필설로 다할 수 있을까.

그는 당시 첫선을 보인 컴퓨터 건축프로그램 등 첨단지식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했고, 유성경금속이라는 회사로 옮겨 관리책임자 생활을 했다. 하지만 하루 14시간 이상 이어지는 고된 근무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해 과감히 회사를 관두고 개인사업자로 나섰다.

시간 여유를 갖게 된 그는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해방감에 환호했다. 그러나 웬걸,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를 자신감을 가졌고, 선구자적 안목을 지녔다고 자부했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데리고 있던 직원 한두 명의 임금조차 제때 주지 못했던 거다. 이 말을 하던 김 대표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끝내 눈물이 쏟아졌다. 감정이 얼마나 북받쳤으면 저렇까. “집에도 생활비를 제때 가져가지 못했어요. 늘 힘든 생활에 쪼달렸습니다. 특히 명민했던 두 아들을 볼 낮이 없더군요(후에 그는 두 아들 모두 캐나다에 유학 보냈다). 이 힘든 순간을 열심히 살아내고 이겨내자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죠.”

그렇 만도 했다. 학연과 지연, 혈연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그였다. 그만큼 외로웠을 테다. 그래서 강한 의지와 성실을 무기로 견뎌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였다.

살고 봐야겠다는 절박감에 학원도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공사장을 누볐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희망의 빛이, 멘토가 나타난 거다. 현 수창건설 이강기 전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그를 끌어올린 주인공이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부사장)으로 계셨는데 20개가 넘는 하도급 업체 중 저를 지목해 부산 중앙동 하나은행 빌딩공사 중 금속공사를 맡기시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참 후 그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유가 밝혀졌다. “실력이 있는 데다 약속을 철저히 지켜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사전에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면서요.”

바로 이 경험칙이 김 대표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을 심어줬다. ‘상대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능력이 있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호승윈스피아의 사훈이 ‘유능, 정성, 책임’으로 정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새천년 들어 그는 (주)호승건설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당시 유리내장형 블라인드와 창호자동문을 개발한 선두주자 서울 윈스피아 부산대리점을 맡으면서 사업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이거다 싶었던 그는 본사에 윈스피아라는 이름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해 오케이 사인을 받았고, 호승윈스피아라는 멋진 새 사명을 얻게 됐다. “윈스피아란 말은 Window Utopia, 즉 ‘창문의 천국’이란 뜻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부산에 와서 일하려면 인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부산대 최고경영자(CEO)과정은 비롯한 각종 모임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인 관계를 폭넓게 넓혀 나갔다. 향학열을 불태운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창호 관련 영역을 깊게 파고 들어갔다. 2년 전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에서 받은 석사 학위 논문 제목이 ‘음성지원 비상문을 갖춘 비상탈출구에 관한 연구’였다. 실내 공기와 조도, 센서 감지, 환기 시스템은 물론 방화 셔터와 화재 발생 시 탈출을 도와주는 음성지원 등 미래의 창호 발전을 위한 시발점으로 본 의미 있는 결과다.

이제 그는 좀 더 원대한 꿈을 꾀다. 바로 창호 계통 전문 서적을 펴내는 것이다. “창호 분야에 전문적인 교재가 없어서 모두 현장에서 배우거나 설계도면을 활용해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죠.” 현재 그는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네이버에서 동호회 모임을 활발히 이끌고 있다.

그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극기치원(克己致遠-나를 이겨야 멀리 갈 수 있다)’은 ‘힘든 순간을 기필코 이겨내고야 마는’ 건삶인의 치열한 정신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글 최원열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 (주)이레패널 대표이사 김진태



“

첫 인상이 뭔가 정리된 듯한,  
반듯한 분위기가 풍긴다.  
역시나! 그는 어렵사리  
공사판을 헤쳐 온 여느  
건삶인과 달리 대기업  
출신이었다.

첫 인상이 뭔가 정리된 듯한, 반듯한 분위기가 풍긴다. 역시나! 그는 어렵사리 공사판을 헤쳐 온 여느 건삶인과 달리 대기업 출신이었다. 김진태(60) (주)이레패널 대표.

‘이레’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준비된’이란 의미. 그러니까 김 대표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다.

경북 청도가 고향인 그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부산으로 와 초중고를 다녔고, 대학은 울산대를 나왔다. 졸업과 동시에 당시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부산의 대기업 기린에 입사했다. 금속공학 전공이었던 그는 건물외장재를 취급했던 자회사 기린산업에 배치됐고 여기서 20년을 근무했다. “나를 자부심이 있었죠. 기린산업이 당시 건축자재 분야에서 국내 랭킹 3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항상 닥치는 법. 그가 부산지사장을 맡고 있던 1997년 외환위기가 나라를 뒤흔들었고, 기린 그룹도 경영난으로 부도를 면치 못했다. 화의를 신청해 3년 만에 정상화됐지만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운명이 됐다. 그는 고심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자립의 길을 택하게 된다.

당시 에피소드 한 토막. 어떻게든 부산지사와 직원 9명을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담당 임원을 찾아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어떻게든 회사 회생에 기여하겠으니 살려 달라”고. 결국 1년의 유예기간을 허락받은 그는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일에 매진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예전 실적의 2배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57억 짜리 공사를 따내고 10억 원짜리 수표를 생애 처음 만져보기도 했죠. 그 기쁨이 지금도 뇌리에 선합니다.”

2009년 월급을 받던 시절에서 벗어나 월급을 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선 그는 처음부터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했다. 그에게 남은 건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회사 설립 자본금 2억 원을 구할 데가 없었다. 실의에 빠져 있던 그에게 뜻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찾아들었다.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께서 금융 대출은 힘들지만, 개인 자격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3년 만에 다 갚았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에 20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했다.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렸다. 초창기에는 연 5억 원 정도이던 실적이 이제는 10배 이상으로 커졌다. 명실상부한 중견 전문건설업체로 성장한 거다.

김 대표는 특이하게도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았다. 부도를 맞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한 사업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미수도 없다. “기린에 근무하던 시절 부실채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덕분입니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체크하고 미리 경계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4년 해운대 센텀 사무실에 입주했고, 5년 만에 용자금을 다 갚았다.

그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사업에 애로가 많았다”고 술회했다. “과거 접대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었죠. 지금이야 식사와 운동 자리로 바뀌는 등 사업여건이 참 좋아졌습니다. 수년 전 부동산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돼 발주가 중단되다시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30% 수준으로 급락하더군요. 다행히 준비해 둔 유보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레’라는 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해준 상황이라 하겠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시한 게 또 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다. 과거 기린산업 부산지사장 시절의 혹독한 경험을 그는 잊지 못한다.

“전문건설업은 기술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이직률도 높습니다. 경쟁사에서 연봉 10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면 미련 없이 떠날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매년 말 직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연봉을 제시하게 했다. 그리고 김 대표가 직접 면담하면서 다음해 연봉을 정하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올려달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양보해서 결정합니다. 서로가 만족하니 이직할 이유가 없죠.”

김 대표의 인생 좌우명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다. 그게 오롯이 반영된 게 사훈 ‘감사하는 마음, 도전하는 용기’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데 한자어가 붙어 있다. ‘단발공사(單發弓射)’. 한 발로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집중력을 갖추자는 뜻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강한 의지를 ‘단발공사’에 압축해 놓았다.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한 발의 화살로 과녁을 ‘잘’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의식하지 않고 허공에 수만 발의 화살을 쏜다면 이는 ‘열심히’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낭비에 불과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기에 말이다.

그에게 은퇴계획을 물었다. “65세쯤에 물러날까 합니다.” 일하기에 아직도 창창한 나이에 왜? 알고 보니 그에겐 야심찬 인생2막의 플랜이 있었다. 돈을 버는 게 아닌 봉사하는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글 최원열



# 01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23. 6. 30 → ’23. 12. 31)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

### 02 적용기간 : 2023. 12. 31 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3. 6. 30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특례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02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 상황 고려

03 **특례기간 연장** : 2023. 12. 31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 기간을 연장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적용대상** :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02 **선금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계약법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일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03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 04 **적용방법**
  - 지급받은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05 **특례 적용기간** : 2023. 12. 31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14호(2023.7.3.)】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  
-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발주요건 강화
- 02 **시행일** : 2023. 7. 3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종전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서 '입찰공고일'로 조정하여 충분한 검토시간 보장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 수의계약 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도록 개선해 낙찰율 상향 효과 기대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낙찰자 결정 전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 결정 불가능한 중대한 공고 하자 등) 입찰 취소사유 추가 명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3.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나 발주처 부담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기존) 계약대상자만 뇌물·향응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출

#### 02 시행일 : 2023. 7. 1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수의계약 하한율 개선은 9.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지방계약법 개정 사항 중 2023. 7. 12 시행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와 관련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 <개정내용>

제13조(낙찰자 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02 유의사항

-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시스템 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은?
  - 입찰시 조달청 시스템에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 중 순공사비 부분을 입력하는 메뉴가 신설되어, 상대방은 이를 유의하여 순공사비의 100분의 98미만이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함.
  - 개찰시 순공사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배제는 계약담당자의 수기 작업이 필요함
  - ※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은 미구현
- 상기 개정안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 기준이 기준이 기초금액 인지? 아니면 예정가격(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 인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 기준은 예정가격(기초금액 ±3% 범위 내)이라고 할 것임.
-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산정방식은?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또한 상기 산정방식에 따른 ‘순공사원가 × (98/100)’의 계산결과 소수점값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처리 방식은?
  - 산출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의 산정 기준은?
  - 전체금액이 아닌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1

## 2022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 시행에 따른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공시했다.

### 01 2022년도 기준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분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콘
부채비율	58.91%	78.23%	80.30%	61.67%	88.50%	64.96%
유동비율	215.12%	164.72%	145.82%	191.05%	128.72%	203.98%
구분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부채비율	65.57%	54.04%	165.00%	135.12%	131.47%	92.12%
유동비율	152.46%	232.56%	124.04%	124.86%	138.85%	106.31%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02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종합공사 입찰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103.27%	140.31%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재)한국건설산업품질 연구원 홍보 안내

(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은 우리협회가 설립한 부설 연구기관으로써 건축, 토목, 환경 관련 건설자재 품질시험, KOLAS 공인시험, 조달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원은 품질시험 성적서 발급은 물론 신기술개발, 특허출원, 현장의 설계변경 등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우리협회 회원사 혜택

- 각종 시험검사 의뢰 시 수수료 30% 감면
- 건설신기술 사이버 전시관 사용

### 02 홈페이지 주소 : [www.kqci.re.kr](http://www.kqci.re.kr)

### 03 문의처 : ☎031-322-0325~7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01 **운영기간** : 2023. 8. 7 ~ 2023. 9. 26

0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 051-460-1042, F : 051-460-1004)

### 0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 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안내

2023. 8. 18(금)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중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

### 0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주요내용

-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m 단,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으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않는 곳
  -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
- 온도 : 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습도 : 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
- 조명 : 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금지

### 03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 휴게시설 미설치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4 **시행일자** : 2023. 8. 18(금)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2022. 12. 1 이후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신고일 기준으로 연면적 15,000㎡ 이상 등의 건설공사시공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02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

**03 적용시점 :** '22. 12. 1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04 선임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05 선임자격**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
- (교육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06 선임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07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08 주요업무 :**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09 처벌기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콘텐츠 목록 안내 (6월~8월)

우리협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0.13)을 통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매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2023년 6월~8월 건설·시설 안전 및 안전산업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매주 안내드리는 안전 콘텐츠는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7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의무 점검 강화에 따른 사전조치 안내

최근 부산광역시 감사실 주도하에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자 불법 이중 배치를 포함한 상시적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1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 및 확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하며,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 또는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는 현장별 발주자의 승낙을 모두 받아 1인의 건설기술인이 최대 2개의 공사현장 까지 중복하여 배치될 수 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9월 7일, 회원사에서 불법적으로 건설기술자를 다중 배치하거나 부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사례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관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8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 확대 및 전환요건 간소화 안내

법무부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연간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까다롭던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체류자격 전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 01 주요내용

-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5천명으로 확대
  - 신규도입보다 E-9, E-10 등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 선발
- 동일 근무처 장기 근속자, 인구감소 근무자 등을 우대
- 점수제 전환요건 대폭 간소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 최근 2년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이며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자

### 02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9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 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20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장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가 2023.9.13 평생교육 진흥원 201호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처벌 중심에서 자율 규제와 사전/사후 예방 중심으로 변경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사후 개선
  -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할 계획
    - 근로자 안전의식과 사업장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
- ‘위험성 평가’ 실시 유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 결정
  - 사고 발생 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는 비율은 약 20% 내외
  -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가 검찰의 기소에 반영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기소장에도 이점을 명시 하여 감경요인으로 작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3.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조치를 할 것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8. 비상메뉴얼을 작성하여 반기 1회 이상 매뉴얼을 점검할 것
  - 3호 위험성 평가, 5호 안전관리자 여건 보장, 8호 비상메뉴얼 작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전체의 50%에 가까움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위험요소를 식별 후 제거/대체/통제 절차를 거쳐서 대응하는 것이 정의
  - 착공 후 1개월 이내 최초 평가, 반기 1회 하는 정기 평가, 위험요소나 공정 변화에 따른 상시 평가로 구분되며 모두 시행 요구
  -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경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이후 개선 요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개별 인터뷰를 통해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를 판단
- 비상메뉴얼은 사고 직후부터 근로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의 메뉴얼
  - 특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 현장에서 대처와 근로자 후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반기 1회 이상 비상메뉴얼을 점검하여 훈련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비상메뉴얼대로 처리하였음은 물론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취지와 개정 방향
  - 정기감독 체계에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위주로 변경
  - 사업주가 안전관리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사고시 비상메뉴얼에 따라 조치 했음을 입증하여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5절 '3-아 신용정보업자 현황'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였다.

### 이 추가 지정된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업무영역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 (역삼동, 동경빌딩)	02-6391-5500	www.kcs.co.kr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 '23.9.18. 입찰공고분부터 해당업체로부터 평가받은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은 모두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권해석  
01

**소송 진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Q** 부실시공 등으로 부당 편취한 시공사에 대하여 소송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을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바, 소송이 법원에 제기 되었을지라도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예:집행정지 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할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2.12.28

  
유권해석  
02

**건설업 기술능력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관련 적용기준**

**Q**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호에 따라 기술능력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함에 있어, 50일 기간에 대한 기준은?

**A**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인정 제도는 기술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 등 건설사업자가 예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등록기준이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가혹함이 인정되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시 다수의 업종을 보유한 업체에게 불리하여 처분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업종을 다수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등록기준 미달 처벌 예외의 도입취지 및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업종간 형성성 제고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호를 적용할 경우 업체가 아닌 개별 기술자를 기준으로 50일 기간을 산정해야 함

예시) 동일회사의 기술자 A 30일, 기술자 B 30일 각각 퇴직으로 신규채용시까지 공백기간이 합하여 50일 초과시에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인정

**근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2021.04.3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5상,759]**



**판시사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83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 < 업종개편에 따른 건설업 자본금 >

2022년부터 기존 29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개편됐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을 유사영역으로 개편해 일부 통합하는 조치입니다. 건설업의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석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으나 행정해석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에 이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

기존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파일공사를 추가해 3개의 업무분야를 통합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신설됐으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해 이들을 세부 업무분야로 하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개정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삭공사업을 통합해 '도장습식방수삭공사업'으로 개정했고, 조정식재공사업과 조정시설물설치공사업을 '조정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을 통합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및 3종과 난방공사업 제1, 2 3종을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외 업종은 약간의 업무범위를 조정, 단일 업종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2.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출자에지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4가지입니다. 이들 중 업종개편과 관련해 시행령에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분야를 추가해야 합니다. 건설법에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업종과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것도 시행령에서는 등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해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종의 주력분야 개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됩니다. 그러나 동일 업종이라도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는 주력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전 수개의 등록업종이 개정으로 인해 단일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 등록기준 특례에 대한 문제도 정확한 이해를 요합니다.

### 3. 전문건설업종 간 통합으로 인해 주력분야가 다수인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3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3개, 조정식재시설물공사업은 2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개의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 4. 전문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의 특례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개정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미 특례신청을 통해 자본금 경감을 받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 5. 업종 개편과 자본금 등록기준의 특례

전문건설업종 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는 다른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해 위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자본금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됐으므로 기존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시 특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과의 관계

이상의 검토를 통해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으로 사라진 업종에 기존의 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 이는 소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 외의 업종을 보유한 경우 건설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순차적으로 등록하며 포장공사업에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1억5,000만원이며 기존 특례적용은 소멸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건설사업자가 시행령 제16조 제6항의 신청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특례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보여 집니다.

## 2023년 3/4분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965 (2023.07.06.)	(주)성우사면, (주)수성엔지니어링, (주)지승씨앤아이	웨이 조립과 정착이 가능한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 및 강연선 또는 바를 결합되어 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근접병설터널 필라부 보강 시스템 (SW System)	웨이 조립과 정착이 가능한 양방향 커플러에 강관 및 강연선 또는 바를 결합하고 코킹 및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필라부 보강 공법으로 선행터널과 후행터널의 보강재를 단계적 일체형으로 결합하고 가압적 그라우팅을 시행하기에 구조적 안정성을 실현한 근접병설터널 보강시스템
966 (2023.07.06.)	(주)포스코, 롯데건설(주), 신세계건설(주), (주)호반건설, (주)한양, 에이치엘디앤아이 한라(주), (주)피컴스	수직스티프너와 수평타이로 구성된 U형 강재보를 이용한 합성전이보 (P-Girder) 공법	U형 강재보의 웹 내측 면에 ㄱ형강인 수직스티프너를 용접하고, 양측의 수직스티프너는 수평타이로 용접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보의 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킨 구조로 벽식구조에서 기둥-보 구조로 하중을 전달하는 전이층 시공 공정 중 동바리 설치작업을 배제 단순화한 합성전이보 공법
967 (2023.07.18.)	씨티씨(주), 에이아이 안전연구원(주)	실측 변형률과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동적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	주행차량의 위치와 속도 정보 및 교량의 실측 변형률과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교량의 정·동적 처짐을 산정하는 기술
968 (2023.08.25.)	(주)휴건설, (주)스타건설	스틸링 및 반투명 PVC 표면재를 이용한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보강공법 (SNP공법)	강재로 된 다수의 스틸링을 볼트로 연결하고 기존관의 형태에 적합한 스틸링 틀을 제작하여 기존관 내부에 접합시킴으로써 기존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단일 스틸링 사이를 일자형 연결재를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연결재 사이를 반투명 재질의 다수 PVC 표면재를 이어 붙임으로써 기존관과 표면재 사이의 모르타르 충전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공정을 조립식으로 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관로 보수·보강 공법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하도급 분쟁 해법**

**1  
공법변경으로 공기 연장 예상시  
수급자에 지체책임 못 물어**

공사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이다. 그리고 이런 ‘지체상금’은 통상 ‘지체일수’에 일정을 곱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체의 사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유’와 관련해 통상의 건설공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외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사 지연이 발생할 때 과연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주 문제된다.

특히 공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공 방법이 변경됐는데도 공사기간의 수정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변경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이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수정하더라도 지체상금은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공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공 방법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시공 방법에 의한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이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도 건물신축공사에서 시공자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의 지반이 당초 설계가 전제한 지질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리단을 통해 공법의 변경을 승인한 사안에서 발주자와 감리단은 공법의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시공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공법의 변경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공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공사기간의 준수만을 요구했다면 지체기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이우만 변호사

**2  
하도급법 ‘지연손해금 규정’은  
민사상 법정이율보다 우선**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은 현재 연 15.5%이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61일부터 하도급대금에 연 15.5%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에 대한 민사판결에서 위 하도급법에서 정한 이율과 기간보다 더 낮은 이율과 더 짧은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인정받겠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 차액이 소멸된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판결 참조).

하도급법의 지연손해금과 일반 민사판결에서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위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급사업자 A가 원사업자 B로부터 화물용승강기공사를 2억원에 하도급 받아 2015년 10월28일 완료했음에도 B가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 하도급법에 따른다면 B는 12월28일부터 2억원과 이에 대한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A가 B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면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B는 일반 민사사안과 같이 2억원 및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소제기는 지급기일을 한참 도과한 후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편의상 2016년 2월29일을 판결 선고일로 가정)부터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그런데 만약 B가 하도급법이 아닌 일반 민사판결에 따라 2월29일부터 원금과 이에 대한 연 15.5%의 지연손해금(1000만원으로 가정)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A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지연손해금(1500만원으로 가정)과 기존에 지급받은 지연손해금과의 차액(500만원)을 다시 B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A가 일반 민법 또는 상법상의 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가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수령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이우만 변호사

## 부산 진출·임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3. 7. 1. ~ 2023. 9. 30.)

### 전출업체 현황

어반플랜 (대표자: 조지연, 경남)

오케이건설(주) (대표자: 김정식, 경북)

일성개발(주) (대표자: 박문수, 경남)

(주)한영건설 (대표자: 신외식, 경남)

(주)효민산업개발 (대표자: 이종훈, 경남)

### 전입업체 현황

(주)녹색지대 (대표자: 김정수, 울산)

(주)대하씨엔디 (대표자: 김용현, 경남)

디에이치건축소방(주) (대표자: 조영자, 경남)

(주)섬진강 (대표자: 최미화, 인천)

(주)세오이엔지 (대표자: 서희정, 울산)

(주)예도건설 (대표자: 김현우, 서울)

(주)예맥티엔씨 (대표자: 정찬중, 서울)

(주)중앙건설산업 (대표자: 김수라, 경남)

케이제이씨건설(주) (대표자: 진종인, 경남)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2023. 9. 30. 기준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중구	30	50
동구	70	106
서구	29	35
사하구	91	136
영도구	32	45
동래구	213	258
남구	128	167
금정구	281	391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연제구	165	241
해운대구	290	393
수영구	133	196
부산진구	178	237
북구	104	144
사상구	148	184
강서구	289	394
기장군	224	321
<b>합계</b>	<b>2,405</b>	<b>3,298</b>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 변경 현황**

2023. 7. 1. ~ 2023. 9. 30.

변경 전	변경 후
경복건설(주)	(주)경복건설
(주)답건축디자인	(주)디자인주해
(주)동인	동인위터솔루션(주)
보금전기(주)	보금기업(주)
선우토건(주)	(주)선우컨스텍
(주)성한	(주)성한종합환경건설
수림조경(주)	아라조경(주)
(주)이룸인테리어디자인	(주)이룸그룹
(주)인지건설	(주)아트
(주)케이티서브마린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주)틱움조경	(주)구산조경
(주)효원이앤씨	(주)대무조경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변경 현황**

2023. 7. 1. ~ 2023. 9. 30.

상호명	변경 전	변경 후
(주)경복건설	손철환	이유복
구평이앤씨(주)	위윤환	장태선
(주)다운에스앤디	허태호	허태호, 박관지
(주)대가건설	정순국	정완수
대륜건설(주)	김동한	지대성
(주)대무조경	강라희	이성준
(주)대원종합건설	박영철, 김한곤	박영철
동인위터솔루션(주)	강득남	강득남, 김현철
(주)로드	정재찬	한경수
(주)만수건설	성석현, 류성덕, 이상애	성석현
부성건설산업(주)	안상석	김정연
(주)부양건설	정두현	정 권
(주)비에이치원	반영철	조수민
삼정공영(주)	이중희	이광희
(주)성익건설산업	정건모	정건모, 정진영
(주)신영티엔지	최원형	홍임식
(주)아트	임경태	박수정
(주)위아건설	강화유	강화유, 강화인
제이에이치건설산업(주)	박순화	김향숙
(주)중앙제이에스케이건설	남기용	남천일
(주)조은세상	김대영	김대영, 심은서
(주)진명디엔씨	배차영	김영환
(주)토암건설	남기태	남종률
(주)한창이앤씨	제종모, 제영호	제종모, 제인호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3. 7. 1. ~ 2023. 9. 30.)

 <p><b>(주)다힘건설</b>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 355동 413호(가락타운 2,3단지) <b>T: 051-710-9552</b> 보유업종: <b>지반조성·포장공사업</b></p> <p><b>조세림</b></p>	 <p><b>(주)동하건설</b>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345번길 13 (대저1동) <b>T: 051-972-6755</b> 보유업종: <b>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b></p> <p><b>김무덕</b></p>	 <p><b>(주)미소조경</b>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17동 202호(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b>T: 051-796-0817</b> 보유업종: <b>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b></p> <p><b>김미소</b></p>
 <p><b>(주)부경아이앤디</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83번길 32 (부암동) <b>T: 070-8800-9958</b> 보유업종: <b>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b></p> <p><b>이재응</b></p>	 <p><b>씨에스청산건설(주)</b>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488, 6층 (대연동) <b>T: 051-721-0594</b> 보유업종: <b>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b></p> <p><b>서진우</b></p>	 <p><b>(주)엔에스나무병원</b>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2, 장수빌딩 202호 <b>T: 051-752-7858</b> 보유업종: <b>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b></p> <p><b>김경동</b></p>
 <p><b>(주)오성</b>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16상가1동 1호 (대평동1가, 대동대교맨션아파트) <b>T:</b> 보유업종: <b>수중·준설공사업</b></p> <p><b>조연나</b></p>	 <p><b>(주)정일산업</b>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28번길 39, 2층 상가동 8호(은마아파트) <b>T: 051-334-0023</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권상임</b></p>	 <p><b>(주)제이엠디자인</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55번길 27, 1층 (당감동) <b>T: 070-8727-3915</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이현정</b></p>
 <p><b>(주)제이제이디앤디</b>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10, 4층 <b>T: 051-754-2201</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손희주</b></p>	 <p><b>(주)지광</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25번길 50, 2층 (재송동) <b>T: 051-758-0407</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박행제</b></p>	 <p><b>(주)창조실내건축</b>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77, 2층 (화명동) <b>T: 1533-1736</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이원식</b></p>
 <p><b>(주)화랑건설</b>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10번길 105, 1층102호 <b>T: 051-527-5858</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 <b>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b></p> <p><b>황민욱</b></p>	 <p><b>(주)화정이엔씨</b>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16동 211호(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b>T: 051-796-2621</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이정선</b></p>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8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과 만나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윤학수 회장,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김승기 전건설 상임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김정재 의원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한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윤학수 중앙회장은 △종합업종에 제한 없는 전문공사 시공자격 부여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불공정 경쟁 발생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에서 불법하도급 발생 △전문업종의 존립 근거 상실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종합업체의 무분별한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고 영세 전문업체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확대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고충을 국회에서 잘 헤아려 입법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8월 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내국 건설기능인 및 청년 건설기능인 고용촉진 등을 통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내국 건설기능인 취업지원 △청년 건설기능인 고용촉진 △건설기능인 고용환경 개선 △전자카드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전문건설사업자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현장 각종 법률 분쟁 및 노무, 세무·회계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조합원이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센터 전화(02-3284-3000)로 문의하면 된다.

## 부산시회 2023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비고
2023.11.2(목)	2023년 신규회원 간담회	
2023.11.2(목)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사업 분과회의	
2023.11월 중	제1차 전문건설인 오찬세미나(예정)	
2023.12.21.(목)~12.22(금)	2023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산업현장 필수 안전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밀폐공간 주요**  
**작업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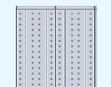
- 1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확인 및 출입금지 관리
- 2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3 밀폐공간작업 허가절차 마련
- 4 보호구 및 안전장비 지급
- 5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6 작업 전-작업 중 반드시 환기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7 작업상황 감시인 배치
- 8 출입 및 퇴장 시 인원점검
- 9 보호장비 없이 구조 금지



# 한 눈에 보는 산업현장 필수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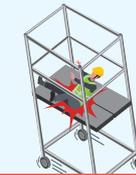
##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이동식 비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 이동식 비계 준수사항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틈 없이 설치
-  승강용 사다리 설치
-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금지
-  최대적재하중 안전표지 설치
-  자재·공구 등은 로프와 포대 이용
-  아웃트리거 설치
-  바퀴고정 장치 사용



### 이동식 비계 금지사항

-  탑승하여 이동금지
-  전도방지장치 없이 사용금지
-  난간작업 등 불안행동 금지
-  안전난간 없이 단부작업 금지
-  작업발판 빈틈으로 추락
-  적재하중 초과 금지

## 2023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 2023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발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8시간 (09:00 ~ 18:00)
- **교육비용:**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 04 2023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11~12월)

교육차수	신청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수료증 발급
		부터	까지	
제44기	11.02	11.04	11.10	
제45기	11.09	11.11	11.17	
제46기	11.13	11.15	11.21	
제47기	11.23	11.25	12.01	
제48기	11.30	12.02	12.08	
제49기	12.07	12.09	12.15	
제50기	12.11	12.13	12.19	

#### 05 2023년 집합교육 일정(11 ~ 12월)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장 소
제43기	11월 03일	의정부	신한컨벤션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109번길27,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2홀)
제44기	11월 10일	창원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3층 나눔홀)
제45기	11월 17일	천안	천안축구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중세미나실)
제46기	11월 2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47기	12월 01일	대구	대구무역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제48기	12월 08일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제49기	12월 15일	진주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4층 세미나실)
제50기	12월 1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 MZ세대 넘어 **잘파세대** 가 온다

지금은 어느 분야든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그간 화두가 된 세대는 ‘MZ세대’였다. 그러나 최근 MZ세대 에 이어 더 어리고 영향력 있는 세대, 잘파세대가 떠오르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 ‘잘파세대’라는 세대 간 타깃의 재조정과 특징

MZ세대 중,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출생)와 Alpha세대 (2010년 이후 출생)를 묶은 잘파세대는 일반적으로 10대 후반~20대 중반을 이루는 인구집단이다. 어찌보면 MZ세대를 지칭하는 폭이 넓다보니 10대와 20대를 주축으로, 보다 세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개념에서 보면, Z세대와 M세대의 자녀인 알파세대를 통칭한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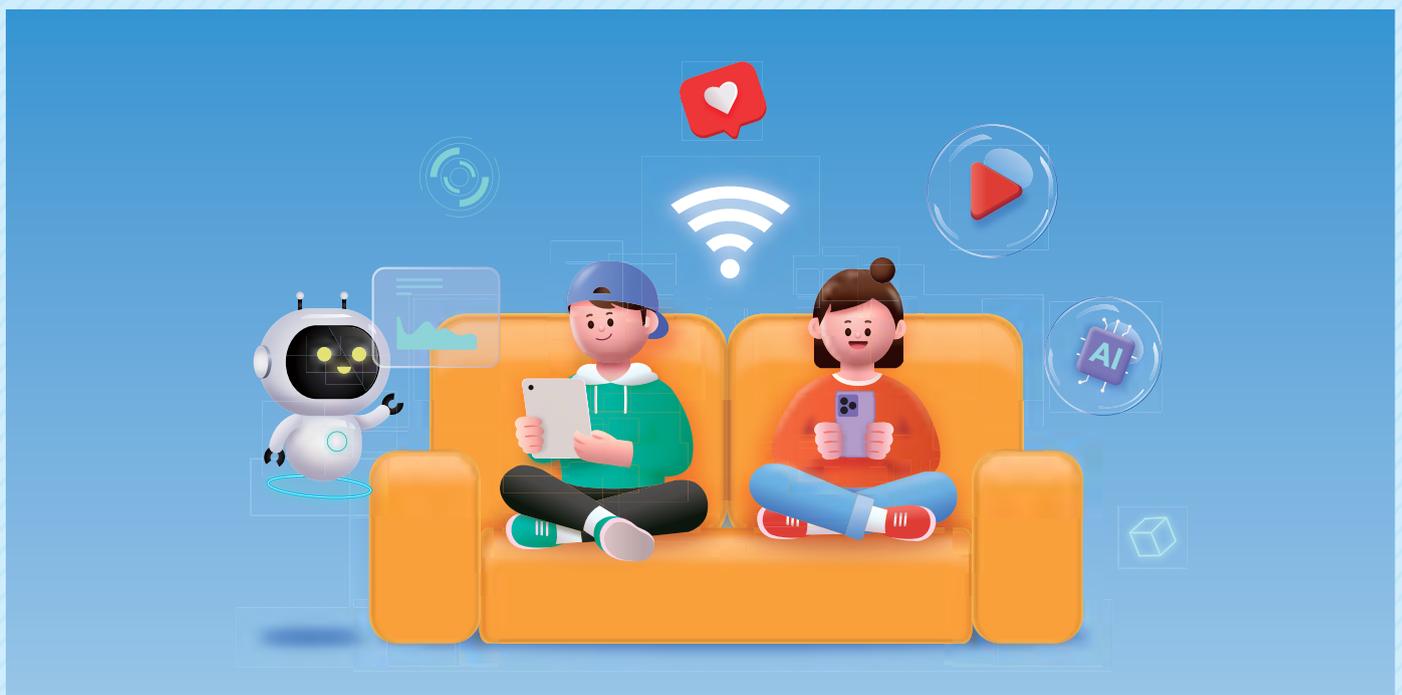
각 세대들은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잘파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주 어릴 적부터 디지털을 접해온 진짜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는 것이다. 그런데다 메타버스, AI 등 새로운 기술들을 끊임없이 접하며, 교과과정에서 이를 습득해 온 이들이 대부분인 뺏속까지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잘파세대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콘텐츠를 올리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쇼츠나 틱톡, 릴스 등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일은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이자 소통창구다. 또한 유튜브 시장의 가장 큰 소비주축으로 본인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다.

## 콘텐츠 활용한 경제관념 + 공유경제 + 나다움

잘파세대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활용해 실제적인 수익에도 연결시키는 이들도 많다. 한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아이템 크리에이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학생 사장 등 다양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잘파세대의 부모 세대가 앞선 세대에 비해 구매력이 높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잘파세대는 이전 그 어떤 세대보다 경제관념에 빨리 눈을 뜨고 또 이전 어느 세대보다 빨리 구축한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잘파세대는 물건을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소비 패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향은 ‘공유경제’로, 본인에게 필요가 없거나 가치가 사라지면 과감히 팔고 다른 것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남녀를 구분 짓지 않는 젠더리스 상품이나 개성에 맞춰 바뀌는 커스터마이징 아이템 등이 그들 세대에선 더 인기다. 누구나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잘파세대를 보여주는 대표 키워드인 셈이다.



# 도심 속 산중 비경을 품은 ‘오아시스’

## 회동호

회동호를 부산시민의 상수원지로만 알고 있다면 그 숨은 비경이 너무나도 아쉽다. 고즈넉한 호수와 더불어 전망 좋은 절벽이란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오륜대’라 불린 이곳은 땅피산 황토숲길, 편백나무숲, 갈맷길 등을 품은 ‘부산의 걷기좋은 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에 걸친 회동호는 1964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가 2010년부터 1월부터 시민에 개방되었다. 그렇다보니 조금은 낯선 곳이자, 아직도 수원지로서의 기능만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둘레만 20km, 총 넓이 2.17km<sup>2</sup>, 직선거리는 6km에 달하는 회동호를 살펴 다 보면, 산과 물, 바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에 넋을 잃고 만다. 특히 이곳은 땅피산 황토숲길과 편백나무숲, 갈맷길 등 심 없는 힐링스팟이 펼쳐져 테마가 있는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하다.

그중 가장 인기있는 땅피산 황토숲길은 주변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호수를 보고,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로 손꼽힌다.

그야말로 ‘오감만족’ 트레킹인 셈이다. 참고로, 이곳 황토길은 땅피산의 황토와 대전 계족산 황토를 섞어 만들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회동호의 북쪽 끝인 상현마을에서 남쪽으로 건다 보면 오륜대(五倫臺)가 나온다. 여러 설 가운데, 조선시대에 주자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숨어 지내면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짜기 주변을 오륜대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특히 부영산 정상에 오르면 물과 산 바위 그리고 흘러가는 구름까지 그야말로 자연이 그린 완벽한 산수화를 볼 수 있다.

사진 김정구형 제공

### 추천코스

- 회동동 동대교-오륜대-선동 상현마을로 이어지는 오륜대 구간(6.8km)
- 회동동 동대교-아홉산-선동 상현마을로 이어지는 아홉산 구간(12.4km)

# 테트리스 화면의 배경이 되다 성 바실 대성당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심 위치한 '붉은광장'. 이곳 진입로로 들어서다 보면,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건축물이 있다. 200여 년간 러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몽골의 카잔 한(汗)을 항복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인 성 바실 대성당이 바로 그곳이다.

성 바실 대성당은 본래 카잔 성당과 함께 자리했었다. 1561년 이반 대제가 몽고군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 바실 대성당을 지었듯, 카잔 성당 역시 폴란드를 상대로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이끌었던 포자르스키 대공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3년에 건축하여 두 성당이 서로 짝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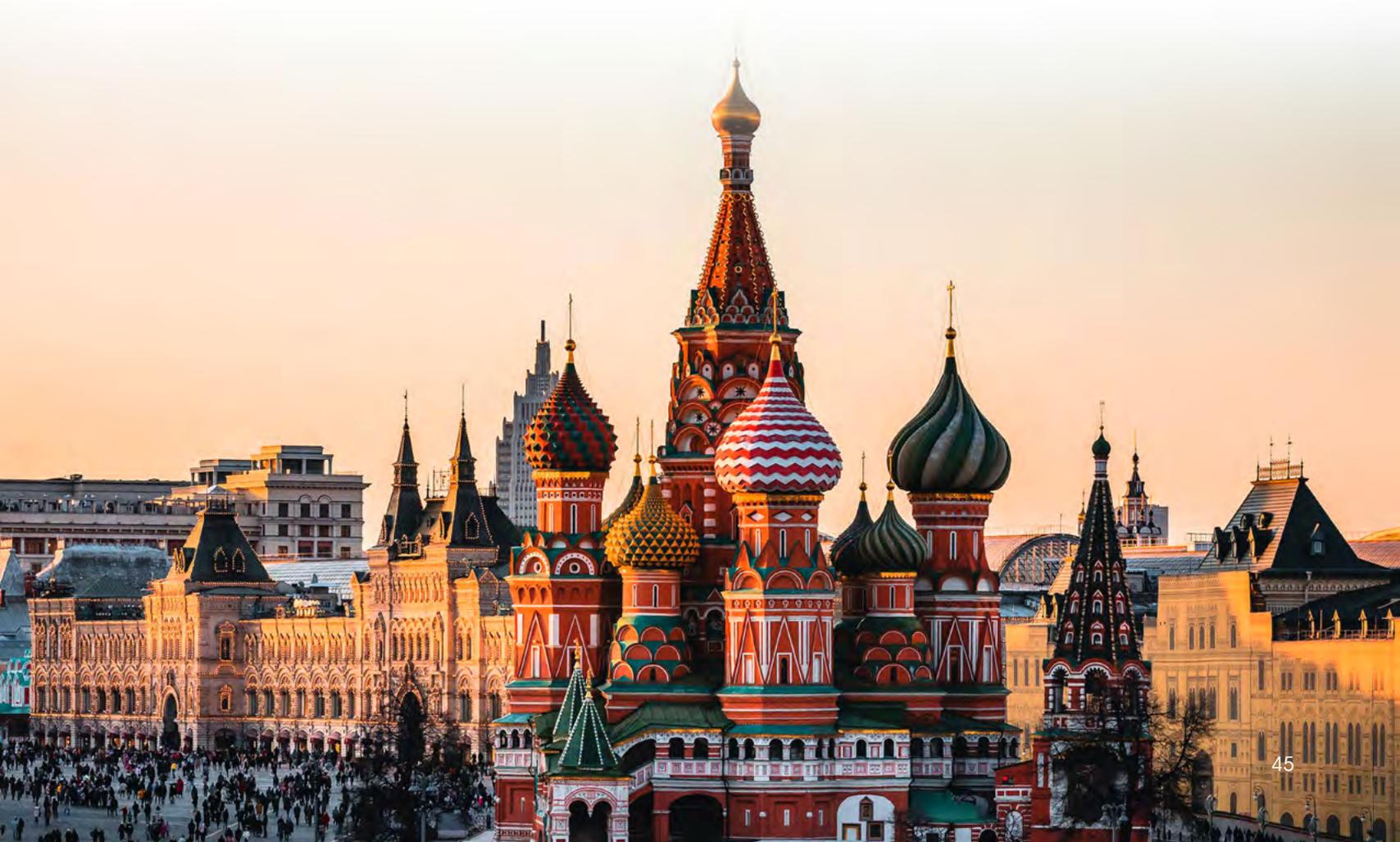
이후 1930년대 카잔 성당이 인근의 수녀원과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성 바실 대성당만이 남게 되었다.

1555년에 착공해 1561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성 바실 대성당. 당시 설계와 건축을 명했던 이반 대제는 그 아름다움에 탄복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성당을 짓지 못하게 설계자인 포스토닉과 바르마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양각색의 색채와 무늬를 자랑하는 9개의 양파형 돔 지붕으로 이루어진 성 바실 대성당은 가장 러시아적이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색 있는 건축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상단 중앙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양파모양의 지붕은 16세기 러시아 집중식 성당 건축의 최고 역작으로 손꼽힌다.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아홉 개의 양파모양 지붕이 모양도 높이도 서로 제 각각이라 더 이색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형상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인 테트리스의 배경에도 성 바실 대성당의 외관을 본 딴 화면이 쓰였다고 한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 녹야 (Green Night)

개봉 2023.11월 예정 | 감독 한슈아이

출연 판빙빙, 이주영, 김영호 등

### “판빙빙 주연, 국내촬영 중국영화”

녹야(중국어: 绿夜)는 2023년 개봉 예정인 중국의 드라마 영화이다. 데뷔작 '희미한 여름'으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피프레스상을 수상한 한슈아이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 초청작 '녹야'는 낯선 곳에서 첫바퀴 같은 삶을 사는 진샤(판빙빙)가 자유로운 영혼의 초록머리 여자(이주영)를 만나 돌이킬 수 없는 밤으로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 노랑 (죽음의 바다)

개봉 2023.12월 예정 | 감독 김한민

출연 김윤석,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 김성규, 이규형, 이무생, 최덕문, 안보현 등

### “이순신 장군, 최후의 전투”

2014년 《명량》, 2022년 《한산: 용의 출현》에 이은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마지막 작품으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랑 해전과 충무공 이순신의 죽음을 다루는 영화이다. 배우 최민식·박해일에 이어, 김윤석이 비장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우직한 이순신으로 분했다. 맹렬한 전투의 전신을 건네받은 그를 통해 김한민 감독이 세공한 충무공의 세 번째 조각을 맞춰볼 수 있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책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분야별 힐링 북을 소개한다.



## 꿍주린 마흔의 생존독서

변한다 저 | 느린서재 | 2023년 9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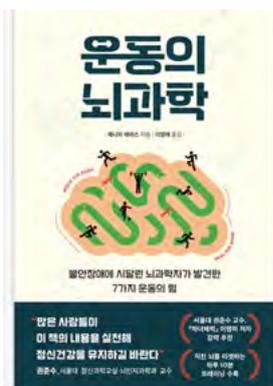
밥은 굶더라도 책을 읽어야 하루가 마무리된다. 책을 읽지 않으면 영 불안하고 하루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루에 평균 1.5권, 그녀가 읽는 책은 고전에서 문학부터 철학, 자기계발, 경제·경영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게 근 2년 동안 읽어나간 총 800권의 책과 그 책들 속에서 찾은 지혜, 그동안의 독서 일기를 모으고 갈무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 나의 다정한 그림들

조안나 저 | 마로니에북스 | 2023년 9월 발행

『그림이 있어 괜찮은 하루』, 『월요일의 문장들』 등의 에세이로 독자의 마음을 보듬고 울렸던 조안나가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 답은 바로 예술이다. 『나의 다정한 그림들』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만난 그림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다. 그림을 발견한 순간과 그것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찾아 헤맨 과정이 담긴 책이다.



## 운동의 뇌과학

제니퍼 헤이스 저/이영래 역 | 현대지성 | 2023년 8월 발행

『운동의 뇌과학』은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뇌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극복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창의력 향상, 노화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탐험한 “뇌과학 기반 운동 실천서”다. 저자는 불안장애로 인해 힘겨웠던 육아와 자신의 결혼생활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사방이 막힌 듯 인생이 막막했을 때 운동이 자신을 구출했던 과정을 드러마틱하게 서술한다.

# 본격적 2차전지의 시대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2023년 1천210억 달러(약 160조원)에서 2030년 4천1억달러(약 531조원), 2035년 6천160억달러(약 815조원)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높아지는 전기차 점유율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엔진인 2차전지. 충전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2차전지는 언제든 다시 사용이 가능해 노트북이나 태블릿,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부터 전동 킥보드 등 적용대상 및 수요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



\*SNE리서치 자료 인용



##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2차전지

2차전지(secondary battery)란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가리킨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지는 화학전지이다. 화학전지 중 건전지와 같이 충전할 수 없고 1회만 사용 가능한 전지를 1차전지라 부르고 반복해서 충전방전이 가능한 전지가 2차전지이다.

2차전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며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다. 2차전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대한민국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기도 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은 나날이 팽창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에너지 혁명 과정에서 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폭증과 협업 주목

기존 2차전지는 불에 잘 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해 폭발 위험성이 높았다. 현재는 휴대폰, 웨어러블 장치나 전기자동차 등에 2차전지 활용이 많아지면서 고도의 공정 기술을 거쳐 안전성을 높인 소재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면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에 의한 위험성을 낮추면서도 디자인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터리 기술 고도화 및 기술표준 강화에 따라 2차전지는 미래 지속 성장이 가능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 속에서 국내외 배터리 업계와 국가 간 활발한 협업 등 2차전지 특화단지에 걸맞은 국가산단 추가 조성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 국민 누구라도 • 쉽고 편리하게 • 전국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 공공개방자원 플랫폼 **‘공유누리’**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공유지도 서비스, 공유자원서비스, 통합검색서비스, 특별한 개인 맞춤 서비스, 알림 서비스, 챗봇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통합검색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지도검색 버튼을 눌러 공공개방자원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유신청·예약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자원유형별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공유지도

주변자원 검색, 길찾기 등 지도를 통해 자원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공지사항, 이벤트, 우리동네 공유소식, Q&A, FAQ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지개인정보변경, 장바구니, 본인의 예약·승인내역과 이용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증상별 두통 인지하기



## 다양한 두통, 미리 알고 대처하기

앞으로 단순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만으로는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두통의 원인은 수없이 많아 그만큼 생활 속 대처방법 또한 예방보다 증상완화가 대부분이다. 벼락두통과 같은 긴급상황을 포함한 두통의 증상을 인지해둔다면,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긴장형 두통

긴장형 두통은 일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하다. 갑작스레 긴장된 상태에 놓이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습관처럼 하거나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면 근육이 수축하고 뻣뻣해진다. 이로 인해 근육 통증과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 편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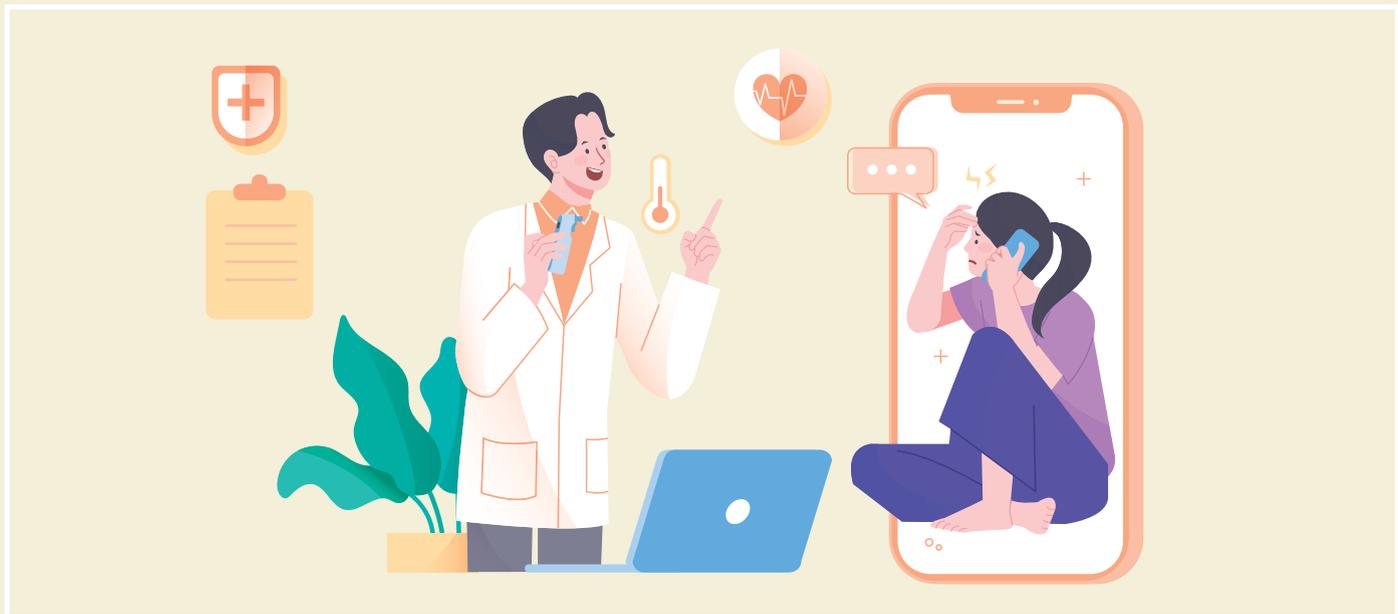
편두통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머리가 반복적으로 울리는 증상을 보인다. 두통이 있는 쪽 눈이 아프거나 충혈이 되기도 한다. 머리를 흔들면 두통이 심해지므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밝은 빛, 소음과 냄새에도 예민해진다. 이러한 증상과 함께 여러 신경학적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 군발두통

눈이나 관자놀이 주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 콧물, 식은땀이 나면 군발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한두 달 동안 매일 한 번에서 수회에 걸쳐 심한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발기와 수개월 간 두통이 사라지는 관해기가 반복된다.

### 뇌졸중에 의한 두통

평상 시 두통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심한 두통(일명 벼락두통)이 나타나고 팔다리 마비나 발음장애, 시력 저하, 의식 저하, 경련 등이 동반되면 뇌출혈 등 뇌졸중에 의한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통 자체가 위험신호이므로 조속히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 찬바람 불 땐 과메기

청어나 꽂치를 반복적으로 열리고 녹이면서 말린 과메기는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뚫어 말리는 모양새를 뜻하는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했다. 찬바람불땐, 생각나는 과메기! 꼬들꼬들한 식감과 양념, 채소와 어우러진 그 맛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다.



## 고도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꽂치를 건조하면서 수분이 날아가므로 과메기에는 각종 영양성분이 농축돼 있다. 과메기와 꽂치를 비교한 자료(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00g당 단백질 함량은 과메기 29.6g, 꽂치 20.2g이고, DHA 함량은 과메기 4.29g, 꽂치 2.05g였다. 또, EPA 함량도 과메기 2.49g, 꽂치 1.47g로 과메기에 영양이 더 풍부했다. EPA, DHA, 오메가-3 등이 포함되는 고도불포화지방산은 혈관확장 작용·혈압저하작용·심근경색 방지·뇌경색 방지 등 심혈관계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칼슘 함유량, 쇠고기보다 많아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핵산, 비타민, 칼슘 등도 과메기에 풍부하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필수아미노산에 속하는 트레오닌(threonine)·라이신(lysine)·메티오닌(methionine)과 조건부 필수아미노산인 아르기닌(arginine)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항암과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핵산과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칼슘 함유량은 쇠고기보다 단위당 5배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 tip.

#### 산패되기 쉬워 밀봉 냉동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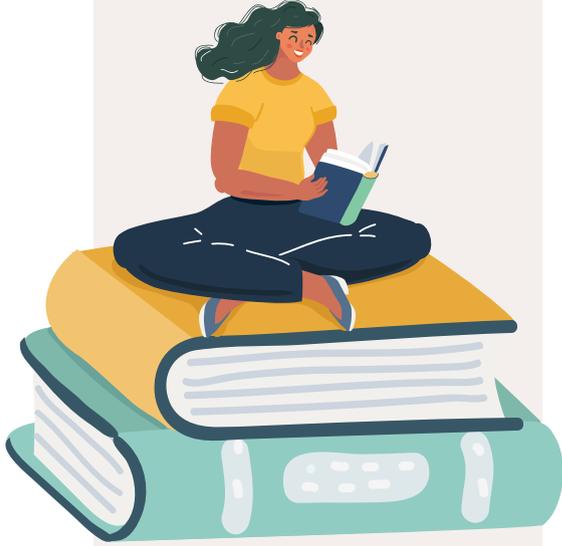
과메기는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지질 함량이 높아 산패되기 쉬워 바로 먹고, 남은 것은 밀봉해 냉동 보관해야 한다.

#### 통풍 환자라면 섭취 주의해야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이 많아져 문제가 되는데, 과메기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대사과정에서 요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통풍환자라면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



## 코스카레터를 읽고...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1개 업종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주)성원조경건설 황소영 과장

(주)송죽원 김유미 부장

### 토암건설(주) 남종률 대표이사



건설산업정보 파트의 법령개정과 회원사 안내의 내용들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과 유용한 지식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엘리베이터(주) 정갑식 상무이사



회원사들이 접하기 어려운 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각종 법령 개정사항과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등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형건설현장 방문과 부산시 및 산하 공단·공사 등 건설업무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등으로 전문건설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하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의 정기평가 실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2023. 11. 30. (목)까지 하시면 추천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천 증명)

#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 ※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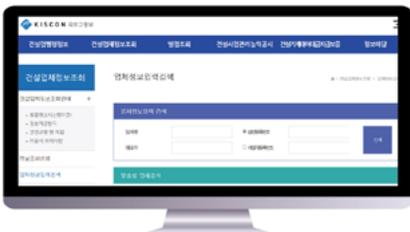


-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 🔍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 PC로 확인하는 방법



-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② '키스콘'으로 앱 검색
- ③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 ④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회